

세월의 흔적 간직한 ‘연길신화서점’… 이렇게 변했어요!

- | 서점에 책 보러 오세요…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 | 변하고 있는 신화서점… 도서열람카드·커피숍 등 독서 분위기 물씬
- | 독서회 모임을 환영합니다… 장소 무료 제공 의향 등 전민독서 문화 선도



연길신화서점 1층 제일 동쪽에 마련된 어린이독서구역. 5.1절 연휴 두번째 날인 5월 2일 이곳에서는 색다른 휴가를 즐기는 독자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영업부 최란 부주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대체적으로 평일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고 또 관광객들도 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연길신화서점’은 건물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한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있다고 한다. 1987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건물의 나이를 짐작케 한다.

“예전부터 서점을 자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늘 해주시더라고요. 주위 건물이 다 변해도 그제날 어릴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옛 건물은 서점이라는 개념을 넘어 그 자체로 추억이 된다고 말이죠.”

변함은 없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건물은 그대로지만 내부 설비 갱신은 물론, 시대와 더불어 서점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더불어 여러가지를 차츰차츰 변화하려고 노력중”이라는 연길신화서점 리창혁 총경리의 말처럼 그 변화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신화서점이 ‘책만 파는 곳’이라는 고착된 개념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점 구역석에 마련된 쪽걸상이나 지정 독서구역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독서실을 방불케 한다. 10년째 매일 신화서점을 찾아와 보고 싶은 책들을 하나하나 독파종이라고 밝힌 연길시민 남씨로인(75세)은 “서점의 서비스와 배려에 매우 만족한다.”며 엄지척을 했다. “신화서점은 사회적 효익이 첫자리”인 만큼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하려는 독자들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서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1층에는 아동독서가 주를 이루다 보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함께 와서 맘껏 독서할 수 있

도록 2022년부터 젤 동쪽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휴식일이나 연휴 기간이면 이 구역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는 소리로 학생독서실 못지 않은 진풍경을 이룬다. 지난 5.1절 연휴에도 부모와 함께 서점에 와서 책을 고르거나 친구와 함께 돌려 책을 읽는 소학생들이 꽤 많이 눈에 띄었다.

1층 절반이 어린이 도서라면 서쪽 절반은 문구류 등을 포함한 근 2만여 종 제품이 진열되어있다. 책 사러 왔다가 필요한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한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10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조금씩 규모가 커졌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거의 다 있다는 소고대.

동심아 물씬 풍기는 1층을 지나 2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연길신화서점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와 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을 또 한번 마주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연길신화서점에 커피숍이 들어섰다. 대중화가 된 커피 문화에 독서를 접목해 “서점에도 커피가 있으니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도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발로 뛰고 발품을 팔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리창혁 총경리는 말한다. 유수의 서점들을 부지런히 고찰 다니며 그들의 경험치를 간접 경험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번 책을 다 사서 읽을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고 번마다 서점에 와서 보기에 시간적으로도 맞갖았을 경우를 고려해 도서 열람카드를 출시했다. 올해 3월부터 내놓은 도서열람카드(借閱卡) 씨비

스는 199원으로 열람카드를 만들기만 하면 1년간 도서열람 특권을 향수할 수 있다. 하루 단돈 55원을 내고 서점의 각종 도서들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셈이다. 출시를 시작해 일주일 만에 이미 30명이 넘게 등록을 마쳤다.

또 한편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책을 읽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피숍이라는 공간을 조성했다. 도서열람카드 없이도 커피숍 유료공간을 리용하면 읽고 싶은 도서들을 쾌적한 의자에 앉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커피와 독서를 결부한 시도는 사실 연길신화서점 공원분점에서 2021년 5월부터 먼저 시작을 알렸다. 카페나 서점을 찾아 휴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엔 일석이조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책 읽는 부모가 아이를 공부하게 만든다.”는 독서교육법처럼 아이를 데리고 서점 커피숍에서 함께 조용히 책을 읽는 부모가 주고객이라면 주고객층이다.

“우리 아이가 지금 내살이라 글을 배우는 단계인데 집에서 배우지만 책으로 둘러싸인 분위기 속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오늘도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휴 두번째 날인 5월 2일, 신화서점 커피숍을 찾은 왕녀사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책을 읽는 분위기가 좋고 원하는 책을 인츰 찾아볼 수 있는 서점 커피숍이 아이의 독서교육에도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라고 만족를 드러냈다.

그러나 하면 “커피숍이 많지만 여기처럼 학습 분위기가 짙은 곳은 드물죠.” 연휴 기간 매일 모여 학습 임무를 완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적의 장

소로 서점 커피숍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하남소학교 6학년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했다.

자유로운 독서 분위기를 이루는 2층을 지나 계단을 타고 서점의 4층으로 가면 거긴 회의실 겸 전 연길시 무료 직원독서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회적 효익이라고 리창혁 총경리는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서회 활동도 환영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주기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는 모임이 많잖아요. 장소 선정이 어렵거나 토론을 펼치며 독서할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혹시 서점에 와서 독서회를 열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간대만 맞으면 4층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여러 분들의 독서열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리창혁 총경리는 전민독서에 일조하고 싶다는 진심을 이렇듯 진실하게 내비쳤다. 2019년 3월부터 책임지고 사업을 주재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껏 서점에 몸담아왔으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인사치레가 아니다. 출근자들이 퇴근해 서점을 찾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겨울엔 5시)까지 지었던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했다. 이렇듯 독자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수요를 관찰하는 연길신화서점의 노력은 부단히 진행 중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와 더불어 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전민독서 계렬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독서점, 도서관, 사회구역서점 등 공익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신화서점은 그렇다면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서점+커피숍’의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주도한 현재, 여기에만 안주하지 않으려는 연길신화서점은 ‘도서관+서점’ 모델을 그린다. 도서관의 공익성 활동과 책이 많은 서점의 우세를 결부해 각종 독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책임기에 더욱 편리를 주려는 공동의 목표를 안고 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과 지금 한창 긴밀히 협력을 구상중이다.

이 모든 시도와 변화의 원천은 ‘독자’이다. “책과 독자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연길신화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네? ‘책 하면 연길신화서점’을 넘어 독서가 하고 싶을 때는 집보다 서점으로, 커피가 떠오를 때면 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며 마시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겠죠.” 리창혁 총경리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며 웃었다.

흔히들 독서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세월과 추억의 흔적을 담아내며 원래 모습 그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신화서점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마음의 양식’ 창고 역할을 톡톡히 했고 해내고 있으며 또 해나가게 될 것이다.

/ 김가혜기자



길림성 각 지역에 어떤 박물관들 있나?

올해 길림성에 ‘문화박물관 열풍’이 불면서 박물관 참관이 새로운 열점으로 되었다. 청명절과 로동절 연휴 기간 길림성내 박물관들은 관람 고봉기를 맞이하였으며 관람 인원수와 입장료 수입이 모두 대폭 상승하였다. 길림성 각 시(주)에는 도대체 어떤 둘러볼 만한 박물관이 있을까? ‘5.18 국제박물관의 날’을 맞으면서 길림성내에 있는 112개의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장춘 32 개

1. 길림성박물관
2. 길림성자연박물관
3. 위만황궁박물관
4. 길림성전적박물관
5. 길림성동북 2 인전박물관
6. 장춘시문묘박물관
7. 동북함락사진렬관
8. 장춘시쌍양구박물관
9. 덕혜시박물관
10. 유수시박물관
11. 유수시소향박물관
12. 농안현박물관
13. 장춘시방직관(장춘도대아문박물관)
14. 길림대학교고고학과예술박물관
15. 길림대학지질박물관
16. 동북사범대학 동북만족민속박물관
17. 길림성중의약박물관
18. 장춘대학사머니즘 문화박물관
19. 동북아금융박물관
20. 직업교육박물관
21. 장춘영화제작소옛터박물관
22. 길림국제애니메이션박물관
23. 길림성민간공예미술관
24. 길림성술문화박물관
25. 장춘인덕복방 고대문명박물관
26. 길림성보봉예술박물관
27. 관운덕만족민속박물관
28. 장춘박물관(장춘시문물보호연구소)
29. 공주령시박물관
30. 장춘시쌍양구 만의만약박물관
31. 장춘시쌍양구 역가예술박물관
32. 장춘시쌍양구 성세토텐말문화박물관

길림 16 개

1. 길림시박물관(길림시문석박물관)
2. 길림시문묘박물관
3. 길림시만족박물관
4. 길림시명정조선소 유적지박물관
5. 길림수군영박물관
6. 교하시박물관
7. 화전시박물관
8. 서란시박물관
9. 반석시박물관(반석시항일투쟁기념관)
10. 영길현박물관
11. 길림시로동자기념관
12. 길림시혁명렬사기념관
13. 풍만수력발전박물관
14. 길림시오덕의람목 예술박물관
15. 길림시황관동(関关东)포도주박물관
16. 흥덕박물관

사평 5 개

1. 사평전역기념관
2. 사평시박물관
3. 쌍료시정가툰박물관
4. 리수현박물관
5. 이통만족자치현박물관

료원 7 개

1. 료원시박물관
2. 동북함락시기료원광부묘진렬관

3. 료원시제 2 차세계대전동맹군 고압전장포로영구지전시관
4. 동풍현박물관
5. 동료현민속박물관
6. 소사평박물관
7. 료원시민속박물관

통화 8 개

1. 통화시박물관
2. 통화시고지항기념관
3. 집안시박물관
4. 휘남현박물관
5. 류하현박물관
6. 휘남현병기공업박물관
7. 수정박물관
8. 통화현대전원유류력사문화박물관

백산 11 개

1. 백산시장백산만족문화박물관
2. 무송인삼박물관
3. 정우화산광천군지질박물관(정우박물관)
4. 백산시박물관
5. 백산시혼강구 칠도강회의기념관
6. 백산시강원장백산 송화석박물관(백산시강원구박물관)
7. 백산시강원구석인혈루산(石人血泪山)조난광부기념관
8. 진운구거거기념관
9. 부의퇴위선포기념관
10. 림강시‘4보림강’(四保临江)전역기념관
11. 정우현장정우장군순국지관리처(양정우장군기념관)

송원 9 개

1. 송원시박물관
2. 부여시박물관
3. 부여시료금력사문물진렬관
4. 간안현박물관
5.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 고르로스박물관
6. 전고르로스차간호 어름문화박물관
7. 전고르로스현왕부진렬관
8. 전고르로스현 칭기즈칸소박물관
9. 송원시금원박물관

백성 7 개

1. 백성시박물관
2. 진래현박물관
3. 백성시조북구박물관
4. 도남시박물관
5. 대안시박물관
6. 통유현박물관
7. 길림대안료대양조문화박물관

연변 13 개

1. 연변박물관
2. 연길시박물관
3. 도문시박물관
4. 돈화시박물관
5. 돈화시력사박물관
6. 훈춘시박물관
7. 룡정조선족민속박물관
8. 화룡시박물관
9. 왕청현박물관
10. 안도현박물관
11. 연변대학박물관
12. 연길시력사문화박물관
13. 장고봉사건기념관

장백산 2 개

1. 장백산자연박물관
2. 장백산신묘유적연구원(장백산민속박물관)

매하구 2 개

1. 매하구시박물관
2. 매하주류박물관

/ 길림일보



딸아이를 학원에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 종종 서점 커피숍에 들려 책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연길시민 한녀사도, 글을 배우기 시작한 4세 딸아이의 독서교육을 위해 들린 왕녀사도, 공부토론을 위해 일부러 학습 분위기가 짙은 서점 커피숍을 찾았다는 하남소학교 학생들도 떠나없이 흥보가 더 짙어져 전민독서 분위기가 짙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